

④ 文殊寺址라고 傳하는 相當한 畵의 절터가 있어서 現在도 數個의 礎石과 碑石一座가 있고 石築이 殘存한다고 하나 調査當時 畵兩로 이곳 踏査는 中斷하였다.

資料

法泉寺址石造光背

秦弘燮

原城郡教育廳의 申告에 依하여 지난 七月 現地에서 調査한 바 있는 이 光背는 法泉寺址의 一角에 傳하는 智光國師의 塔碑殿址에서 南方約四〇〇m 나지막한 稜線너머에 位置한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二區 六五九番地 이창호氏宅에서 發見되었다. 이 家屋은 一九六七年 四月二十五日에 立柱上 樑하얏는 바 부엌 바닥을 高루다가 地表下 約一尺 밑에서 發見된 狀態로 發見되었다고 한다. 다른 遺物은 없었고 이 光背에 달린 佛像도 發見되지 않았다고 한다.



法泉寺址石造光背地圖

이 光背는 寶珠形으로 全高 一四八cm 幅 一一cm 厚約二五cm로 完形으로 남아 있다. 밑에는 六六·五cm × 一四cm × 二〇cm의 長方形의 軸이 달려서 아마 佛像臺座에 끼워서 세웠던 것으로 推測된 다.

裏面의 狀態는 確認하지 못하였으나 表面에는 全面的彫飾이 加해지고 있다. 中央에 隆起線二條로 圓形을 그리고 (徑六八cm) 그 안에 徑三四·五cm의 圓形 凸部가 있어 子房을 表示했을 뿐 다른 彫刻은 없다. 이 圓圈은 頭光임이 틀림 없고 그 밑 左右에 莖이 있는 草花形이 彫刻되어 外緣部와 區分하였으니 아마 身光을 表示한 듯 하며 頭光下部 즉 身光에 該當하는 部分에는 彫刻이 없다. 外緣部에는 火焰이 陽刻되었고 그 사이에 五軀의 化佛이 있다. 이 化佛들은 特色을 보이고 있으니 頂上의 化佛은 頭身 兩光을 갖추었고 飛雲臺上에 結跏趺한 坐像으로 降魔觸地의 手印을 한 如來像이다. 바로 밑에 左右로 있는 化佛二軀는 亦頭身 兩光을 갖추었고 臺座는 明確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左足은 跏趺座를 풀고 무릎 밑에 내려 놓았고 손은 合掌하여 姿勢가 모두 若干 안을 向하고 있다. 다음 兩軀는 頭光 中心에서 若干 밑으로 左右에 있는 바 姿勢는 大體로 바로 위의 化佛과 같으나 光背가 省略된 듯 하고 飛雲 위에 앉아 天衣를 날리고 있다. 이러한 形態를 볼 때 頂上에는 如來像을 그 밑에는 菩薩像을 다시 밑으로 飛天像을 配置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佛像의 크기는 頂上이 高二二cm 膝幅 九cm 下端이 高二〇cm 膝幅 一〇cm인 바 이와 같은 配置는 보기 드문 特異한 樣式이라 하겠다.

唐津 安國寺址 出土 金銅如來立像

李殷昌

浮石寺 住持 任啓福氏는 金銅佛立像二軀를 所藏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瑞山郡 浮石面 江堂里 出土 金銅佛立像이고 또 하나는 이곳에 紹介